

김민수님을 위한

가장 사망시 월생활비 250만원 확보설계

외벌이 가장의 책임, 숫자로 확인하고 구조로 준비합니다

고객명

김민수 (만 41세)

직업

제조기업 과장 (근속 13년)

가족

배우자 + 자녀 2명

핵심 니즈

가족생활자금 월 250만원 확보

월 여유자금

약 50만원

현재 사망보장

1억원 (목표 대비 부족)

Today's 결정사항

[선택] : 효과 우선과 부담 우선, 어떤 방식이 편하십니까?

오늘은 '가입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를 정리합니다

A안 효과 우선

- 월 250만원 생활자금 + 대출상환 보강
- 기존 정기보험 유지 + 가족생활자금형 추가
- 월 납입: 약 17만원 (여유자금의 34%)
- 보장 공백을 빠르게 축소

B안 부담 우선

- 월 250만원 생활자금 집중 (대출상환은 2단계)
- 기존 정기보험 유지 + 핵심 보장만 추가
- 월 납입: 약 12만원 (여유자금의 24%)
- 가계 현금흐름 부담 최소화

"김민수님,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보험에 가입하세요'가 아니라, 만약의 상황에서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고, 더 편하신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먼저 현재 상황을 숫자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진단

[숫자]: 사망보장 1억원, 필요자금 3억원 — 2억원의 격차

외별이 가장의 현재 보장 수준을 객관적 숫자로 확인합니다

현재 사망보장

1억원

정기보험 1건

필요 생활자금

3억원

월 250만×120개월

주택대출 잔액

2.8억원

잔여 23년

비상자금

2,500만원

약 10개월 생활비

- 외별이 구조: 월 소득 430만원(실수령), 월 고정지출 380만원, 여유자금 50만원
- 사망 시 배우자 소득 없음 → 주거비+교육비+생활비 동시 부담
- 현재 보장(1억)으로는 월 250만원 기준 약 3.3년분에 불과

"김민수님, 현재 가족분들의 보장 상황을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월 250만원이 10년간 필요한데, 지금 준비된 건 1억원이니 약 3년 정도만 커버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상황

[대비] : 가계 현금흐름 430만원 vs 고정지출 380만원

가장 부재 시 가족의 현금흐름을 기초 데이터로 확인합니다			
항목	현재 (가장 생존)	가장 사망 시	비고
월 소득	430만원 (실수령)	0원	배우자 소득 없음
주거비(관리비+대출이자)	70만원	70만원	대출 원리금 별도
대출 원금 상환	60만원	60~130만원	상환 구조 조정 필요
교육비	60만원	60만원+α	대학 진학 시 증가
생활비+기타	165만원	120~150만원	최소 축소 가정
보험료	25만원	15~20만원	가장 보험 일부 소멸
월 최소 필요액 합계	380만원	약 250~380만원	축소 가정 시 250만원

"김민수님, 지금 가족분들의 한 달 지출이 380 만원이시죠? 혹시 가장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 380만원 중 최소 250만원은 계속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숫자를 확인하셨으니, 어디서 이 금액을 채울 수 있는지 순서를 정해보겠습니다."

→ 이제 김민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선순위를 확인하겠습니다

실행 우선순위

[행동]: 무엇부터 채울지,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김민수님 가족에게 가장 시급한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1

가족 월 생활자금 확보

월 250만원 × 10년 = 3억원
현재 보장: 1억원 → 부족 2억원

긴급

2

주택담보대출 상환 안정

잔액 2.8억원, 월 원리금 130만원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

중요

3

배우자 전환기 생활비 방어

재취업까지 1~3년 소요 예상
소득 공백기 생활비 최소화

선택

"김민수님,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가족 생활비 유지 맞으시죠? 대부분의 외벌이 가장분들이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고 계십니다. 이 순서대로 하나씩 해결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이제 이 격차를 채울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도 활용(기준)

[질문]: 사망보장은 어떤 구조로 설계할 수 있을까요?

가족생활자금형 보장의 제도적 근거와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원칙 — 정기보험 가족생활자금형

- 사망 시 일시금이 아닌 매월 생활자금 지급 구조
- 보험금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수령액 전액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고객 재무상태에 적합한 보장 설계 필요

예외 — 체증형/감액형 선택

- 체증형: 자녀 성장에 따라 보장액이 증가 (교육비 반영 가능)
- 감액형: 초기 보장 높고 점차 감소 → 보험료 절약 효과
- 납입면제 특약: 장해 시 보험료 면제 — 가능 여부 상품별 확인 필요

주의 — 설계 시 유의사항

- 「보험업법 제102조의4」 청약 철회 기간(15일/30일) 확인 필요
- 고객 투자성향 및 재무상태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달라질 수 있음
-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상품설명서 참조)

※ 상기 법조항은 현행 기준이며, 최신 개정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안별로 세무 법률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김민수님, 가족생활자금형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망 시 목돈이 아니라 매달 정해진 금액이 가족에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지영님 입장에서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흐름이 훨씬 관리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 이 기준을 토대로, 현재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숫자] : 목표 3억원 vs 현재 1억원, 매달 167만원의 격차

필요한 보장과 현재 준비 사이의 격차를 시각화합니다

항목	필요 금액	현재 준비	부족분
10년 가족생활자금 (월 250만원)	3억원	1억원 (정기보험)	2억원
주택대출 상환 재원 (사망 시 잔액 커버)	2.8억원	없음	2.8억원
비상자금 (전환기 1~3년)	3,000만원	2,500만원 (예적금)	500만원
합계	6.1억원	1.35억원	4.75억원

※ 주택대출 상환은 전액 보장 대상이 아니며, 생활자금 내 흡수 또는 단계별 접근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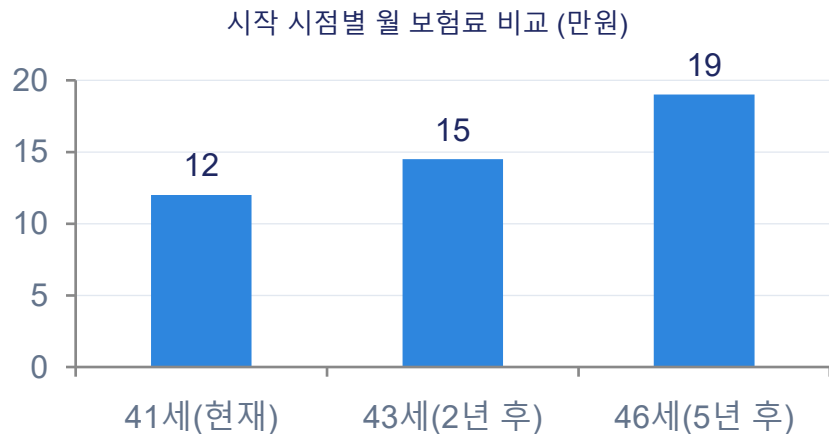
"김민수님, 가족분들에게 필요한 금액과 현재 준비된 금액의 차이가 확인되시죠? 모든 항목을 한꺼번에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이 격차를 채우지 않으면 어떤 기회비용이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기회비용

[대비]: 지금 시작 vs 5년 후, 같은 보장을 위한 비용 차이

일찍 시작할수록 월 부담이 낮아지고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① 공백기간 리스크

현재 보장 1억원으로
약 3.3년분만 커버
→ 6.7년 무방비 구간 존재

② 비용 상승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증가
5년 뒤 시작 시 약 58% 추가
부담 발생 (보수적 가정)

③ 기회비용

같은 월 12만원이면
지금: 월 250만원 보장
5년 후: 월 160만원 수준

※ 보험료는 비흡연 남성 기준 업계 평균 경험치이며, 실제 보험료는 상품·건강상태·인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수치가 아닙니다.

"김민수님, 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시작 시점에 따라 월 부담이 달라집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월 12만원 수준이지만, 5년 뒤에는 같은 보장을 위해 19만원 가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그러면 이 격차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설계 원칙을 정리합니다

플래닝

[행동]: 해지가 아니라, 기존 보장 위에 구조를 보강합니다

기존 정기보험 유지 + 가족생활자금형 추가로 보장 공백을 채웁니다

유동성

사건 발생 시
현금이 언제 필요한가?

- 사망 즉시 매월 생활비 지급
- 일시금이 아닌 월 현금흐름 확보
- 배우자 생활 안정의 핵심

리스크 전가

큰 손실 가능성을
예산화(보험료)로 전환

- 월 12~17만원으로 최대 3억원 보장
- 자가 저축 대비 확실한 보장 구조
-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계약으로 관리

실행 지속성

저축은 중단될 수 있으나
보험은 목표를 고정

- 계약 구조로 10년 보장 고정
- 납입면제 옵션으로 장해 시에도 유지
- 기존 보험 해지 없이 리모델링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무 상태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김민수님, 기존에 가입하신 정기보험 1 억원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족생활자금형을 추가해서, 매달 들어오는 현금흐름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보장 위에 빈칸을 채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이제 구체적인 A안과 B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솔루션 A/B

[대비]: 효과 우선 vs 부담 우선, 김민수님에게 맞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고, 더 마음이 놓이는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교 항목	A안 — 효과 우선	B안 — 부담 우선
구성	① 가족생활자금형 (월 250만원×10년) ② 대출상환 보강 (사망 시 5천만원) ③ 기존 정기보험 1억원 유지	① 가족생활자금형 (월 250만원×10년) ② 대출상환 보강 없음 (2단계 검토) ③ 기존 정기보험 1억원 유지
월 추가 납입액	약 17만원 (생활자금 12만 + 대출보강 5만)	약 12만원 (생활자금 12만)
총 보험료 (기존 포함)	월 42만원 (기존 25만 + 신규 17만)	월 37만원 (기존 25만 + 신규 12만)
소득 대비 비율	실수령의 약 9.8%	실수령의 약 8.6%
사망 시 보장 효과	생활자금 월 250만원(10년) + 일시금 1.5억(기존1억+대출5천)	생활자금 월 250만원(10년) + 일시금 1억(기존 유지분)
보험·연금 역할	유동성 + 리스크전가	유동성 + 실행지속성

※ 보험료는 41세 비흡연 남성 기준 업계 평균 경험치(보수적 가정)이며, 실제 보험료는 상품·인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수치가 아닙니다.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해지환급금 예시는 상품설명서 참조).

"김민수님, A안은 대출상환까지 함께 보장하는 방식이고, B안은 생활자금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월 5만원 차이인데, 이 5만원이 부담이 되신다면 B안으로 시작하시고 여유가 생길 때 보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각 부족분을 어떤 수단으로 채울 수 있는지 매칭표를 보겠습니다

솔루션 2

[행동]: 부족분을 하나씩 채우는 구체적 매칭표

각 부족분에 맞는 해결 요소와 적용 수단을 연결합니다

부족분	해결 요소	적용 수단
가족 생활자금 월 250만원 × 10년 부족	소득보장 — 가장 사망 시 유가족에게 매월 현금흐름 제공	정기보험(가족생활자금형) 월 250만원 지급, 납입기간 20년
대출상환 재원 사망 시 잔액 부담 이전 방지	부채상환 방어 — 주택대출 잔액을 유가족에게 전가하지 않음	정기보험(일시금형) 5천만원 또는 생활자금 내 흡수 (B안)
배우자 전환기 재취업까지 1~3년 공백	비상자금 보강 — 단기 유동성 확보로 전환기 생활 안정	기존 예적금 2,500만원 유지 + 생활자금형 보험으로 보완
기존 보장 유지 정기보험 1억원 해지 방지	리스크 분산 — 기존 계약과 신규 보장의 역할 분리	기존 정기보험 유지 (월 6만원) 신규 가족생활자금형과 병행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무 상태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김민수님, 이렇게 부족한 부분마다 어떤 방법으로 채울 수 있는지 정리가 되셨죠?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어 있는 생활자금 부분만 추가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마지막 정리를 해볼까요?"

→ 마지막으로 오늘 확인하신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확인합니다

Next

[질문]: 오늘 정리한 내용,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편하실까요?

이 체크는 오늘 검토한 내용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체크입니다

☐ A안 진행 (효과 우선) — 생활자금 + 대출보강, 월 17만원

☐ B안 진행 (부담 우선) — 생활자금 집중, 월 12만원

☐ 보완 후 재결정 — 보완 항목: / 재결정 날짜:

다음 단계

1. 선택안에 맞는 상품 비교 자료 준비 (2~3일 내)
2. 건강고지 사전 확인 → 인수 조건 대안 설계 포함
3. 배우자(이지영님)와 함께 최종 확인 후 청약 진행
4. 분기 1회 점검: 보증금액 vs 대출잔액 변동 비교, 소득·가족구성 변화에 따른 보장 재조정 필요 여부 확인

본 자료는 상담 보조 자료이며,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편하실까요?" [잠시 침묵]

※ 성향별 클로징 스크립트는 Speaker Notes(발표자 노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요약 컨설팅트 참고용

핵심 니즈: 외발이 가장 사망 시 월 250만원×10년 가족생활자금 확보

가장 큰 부족분: 필요 3억원 vs 현재 1억원 = 2억원 격차

오늘 결론 질문: "A안과 B안 중 어느 쪽이 더 편하십니까?"

예상 반대 & 즉답

- ① "보험료가 부담돼요" → B안 월 12만원(여유자금 24%), 가계에 무리 없는 수준
- ② "아내랑 상의해봐야" → 충분히 이해. 다음 미팅에 이지영님도 함께
- ③ "기존 보험도 있는데" → 정기보험 1억 유지. 부족분만 추가하는 구조

클로징 멘트: "이 체크는 오늘 검토한 내용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체크입니다." [잠시 침묵]

확인 필요 항목

- ① 건강고지: 부친 고혈압 가족력 → 인수조건 사전 확인
PT 구성 | 코어 12장 + 확장 0장 = 총 12장 (단일 리스크 축, 의사결정자 1인, A/B 2개 — 확장 미해당)
 - ② 납입면제 특약 가능 여부 → 상품별 확인
검증 결과 | A.수치 0건 | B.세무·법률 0건 | C.실행가능성 0건 | D.컴플라이언스 0건 | E.구조·형식 0건 — 전 항목 통과
 - ③ 체증형 vs 정액형 보험료 차이 → 비교 자료 준비
- △ 추가 확인 권장: ① 최신 보험료율 반영 ② 건강고지(가족력) 인수조건 ③ 납입면제 특약 가능 상품

선택안 A/B 시뮬레이션 비교

항목	A안	B안
월 추가 납입	17만원	12만원
총 보험료(기존 포함)	42만원	37만원
사망 시 월 생활자금	250만원	250만원
사망 시 일시금	1.5억원	1억원
리스크 방어 수준	생활비+대출 커버	생활비 집중
소득 대비 부담률	9.8%	8.6%

한 줄 결론: 보수형 고객 → B안(월 12만원) 추천. 배우자 상의 후 2차 미팅에서 최종 확정.